

사회면을 통해서

〈서울신문 논설위원〉 신 태 민

춘원의 「사랑」이란 소설의 여주인공은 석순옥(石筍玉)이란 간호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소설이기 때문에 그당시 쓰이던 낱말 그대로 「간호부」이다.

무척 지적인 그리고 순수한 고등교육을 받은 순정의 인텔리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석순옥의 이미지가 그 당시의 간호원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씨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어찌 시대가 흘렀다. 「간호부」란 낱말도 「간호원」으로 바뀌었다.

낱말은 바뀌었지만 「간호원」이 주는 개념은 변하지 않았고 흰 가운과 흰 캡을 쓴 걸모양도 안 바뀌었다.

종종걸음으로 병원의 복도를 걸어가는 간호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백의(白衣)의 천사가 되부에 느껴지는 듯 감상적이 되기도 한다.

「간호부」가 「간호원」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婦라는 글자가 아래에 붙은 낱말들이 대체로 작부, 접대부, 가정부와 같은 것 들이 많아 간호원이 표방한 순결, 박애정신의 이미지가 흐려질까 두려워한데서 고안된 것인지 모르겠다.

× × ×

어쨌던 간호원은 병자와 의사와의 사이에서 「사랑」과 「희생」을 자본으로 삼고 사는 분들이랄 수 있다.

「그건 그렇고, 한국 간호원에 대한 인상을 말해 봐요.」 한다면, 한국 간호원의 특색적인 점을 찾아낼 수 밖에 없겠다.

첫째로 한국 간호원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박수 갈채를 받을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한국땅에도 부족한 「간호원」인데 여기 저기서 한국간호원을 부르고 있으니 따는 기쁜 일이다.

둘째로 한국간호원들은 고귀한 전문직이란 점을 자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쾌하다. 한때 간호원이란 자기 직업을 감추려는 이도 있었다. 흰 가운이나 흰 캡, 그리고 흰 양말, 흰 구두와 같은 간호원 상징의 복장을 그 일부라도 길거리에서 드러내는 것을 썩스럽게 생각하는 간호원이 차츰 줄어들 듯하다. 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흰 양말 흰 구두만을 보고도 「어, 저 여성도 간호원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간호원 자신의 자부심을 명예롭게 과시하는 모습을 담게 된 듯 하다.

셋째 한국 간호원들은 의국환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일부 한국 환자들이 내뿜는 「억지」「불평」「불만」「항의」등의 잡군적인 정신위생 환경 속에서 용케 견디어 내는 「인내심」이 있어 보인다.

「이 알약 두회분을 한꺼번에 먹어도 돼요?」
「미음 먹는데 지긋 지긋하니 오늘부터 난 밥을 먹겠어요.」

「거 무슨 주사약이죠?」
「난 간이 나쁜데 왜 단 약만 자주 써요?」
「면회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글세 난 입원실에 들어가야겠더군요.」

이같은 「불평」「억지」「항의」 등은 모처럼 봉사정신과 박애정신을 발휘하려고 하는 간호원들마저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같은 환자기풍 속에서 용케도 견디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일부 간호원들의 실수가 한국 간호원 전체의 명예를 상치입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독일에 가 있는 일부 간호원들이 미국으로 도

피도 하고 제약 위반도 했다. 해서 우울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간호원들에게 바라고 싶은 욕망을 귀찮해 준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로 한국 간호원들은 외국땅에 가서는 인기가 좋다. 환자들이 의사의 지시를 잘 따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친절하게만 잘 해주면 된다.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도 10여명의 한국 간호원과 한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한결같이 의사로부터도 또 환자로 부터도 칭찬을 받고 있었다.

대체로 간호원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받을만한 사람(환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간호원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에티켓에서는 호텔에 가서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종업원들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손님으로서의 매너를 먼저 동겨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사적인 품위가 없는 손님이냐 해서 서비스인이 차별대접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서양환자나 특등실 입원 환자에는 상냥한 간호원이 「억지환자」나 꼬양 없는 환자에게는 자중으로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족이나 애인래 하듯 할 수는 없을까?

둘째로 무성의 한 간호원을 가끔 보게 되는 것도 밝게 얻은 간호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해준다.

「얼마쯤 기다리면 의사선생님이 나오시겠어요?」 하고 환자가 들었을 때 쌍웃 웃는 미소에 감싸인 응답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일까? 무표정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해주는 것은 자중 섞인 표정이다. 속상한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까지 나의 우울한 내용을 전연시켜서는 안될 일이 아니겠는가?

세째로 재태환자에게는 아는체 해주는 표적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이구 영숙이 또 왔구나? 그때 좀 낫니?」 필경 영숙이를 데리고 온 영숙이 얼마까지 즐거워질 것이다.

두번 세번 만났는데도 모르는체 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 것이다.

네째로 기계적인 뒷바라지보다 정성이 깃든 시중을 해 줄 때 정말 친절한 간호원이라고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밝고」 「상냥하고」 「친절한」 간호원 전체의 이미지를 깨뜨는 모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간호원들의 「미흡」 이지 한국 간호원 전체 인상 속에 포함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간호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 세균성적인 사소한 몇가지를 더 적출해 본다

말을 다듬어 쓸 줄 알아야겠다. 낱말 선택, 화술, 억양 쓰는법 등을 익힐 필요가 있다.

「열이 갑자기 올랐는데 의사 좀 불러 줘요.」 SOS를 부르는 환자가 있다. 그런 때 아무 댕구도 안하는 간호원도 있다. 또 「취요? 수술 후에는 다 그런 거예요.」 하고 통명스럽게 말하는 이도 있다.

「선생님께 물어 볼게요.」 하는 이도 있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선생님께 여쭙어 볼게요.」가 더욱 품위 있는 말이 될 것이다.

또 간호원들끼리는 즐겁게 얘기하는데 손님이 컷인가 물으면 곧 대답하지 않고 자기네 얘기들을 깔깔대며 더 계속하는 것도 삼가야 할 일이다.

비교적 교양강과 때문에 각 병원을 두루 다니었고 해서 간호원들과의 접촉이 있는 나다. 그러기 때문에 무척 진지하고 상냥스러운 간호원의 생활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인상」을 간추려 본 것 뿐이다.

☆ ☆ ☆